

광주FC 엄지성 “울산 임원상과 대결 기대 커요”



지난해 9골 1도움 ‘영플레이어상’
“1대1 돌파·슈팅·헤딩볼 경합 등
1부리그에서도 통할까 궁금해요”

2023시즌 K리그1의 시선은 광주FC에 쏠린다. 1년 만에 복귀한 광주의 움직임이 올 시즌 관전 포인트. 광주 ‘에이스’ 엄지성의 발끝에도 눈길이 간다.

팀의 강등과 우승을 모두 경험한 3년 차 엄지성이 보여줄 플레이에 팬들의 가슴이 뎀다. 엄지성 본인도 올 시즌이 궁금하다.

엄지성은 광주 금호고를 졸업하고 프로에 직행해 2022시즌 1부 무대에서 거침없는 플레이를 보여줬다. 팀이 최하위로 강등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엄지성의 활약은 그나마 위안이였다. 프로 2년 차였던 지난해에는 K리그2에서 9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영플레이어상을 차지했다.

강렐했던 2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 시즌을 기다리는 엄지성의 느낌은 좋다. 먼저 1부리그에 맞춘 이정호 감독의 업그레이드된 전술이 잘 맞는다.

엄지성은 “작년보다 플레이하기가 편하다. 작년에는 가운데 숫자를 많이 뒤편 볼을 점유하는 식으로 했다면 지금은 윙들이 사이드를 벌리고, 미드필더 숫자 많게 해서 볼을 소유하면서 더 공격적인 상황을 만들려고 하신다”며 “지난해에는 등지는 상황이 많았는데 라인에 걸쳐서 있으니 까다로 하고 플레이를 하면서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 선수들이 잘 소화한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팀이 될 것이다. 감독님 정말 대단하시다”고 언급했다.

1부리그 경쟁력의 또 다른 변수인 외국인 선수들도 든든하다.

엄지성은 “기술적인 부분이나 스피드 이런 부분에서도 워낙 좋고, 감독님이 원하시는 축구를 녹여내게끔 하고 있다. 느낌이 좋다. 같이 훈련하면 ‘와’하는 플레이도 많이 한다. 이번 시즌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2월 25일 예정된 수원삼성과의 개막전도 가슴 설렌다.

엄지성은 “1년 차 때도 첫 경기가 수원 원정경기였고 그때 데뷔전을 치렀다. 이번 첫 경기도 수원 원정이라서 기대가 된다. 빨리 K리그1의 분위기를 다시 느껴보고 싶다. 처음 느낀 감정이기도 했고

1년 차 때 그 분위기를 즐겼다”며 “팀마다 워낙 장점이 다른데 경기장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은 팀들이 있다. 대구, 서울, 수원, 울산, 전북 등과의 경기가 기대된다. 대구는 돔으로 돼 있어서 현장 분위기가 워낙 좋고, 그곳에서 좋은 기억이 많아서 그 분위기를 또 느껴보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2년의 시간,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빨리 느껴보고 싶다. 자신감이 있다.

엄지성은 “1년 차 때는 첫 시즌이기도 하고 무작정 부딪혔는데, 지금은 경험도 쌓이고 프로 선수들과 경쟁도 해서 부딪혀 보고 싶은 마음이 크다.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경쟁력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다. 경기 흐름을 빨리 파악해서 1대1 돌파, 공격 지역에서 슈팅 등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극대화했다”며 “점프 헤딩볼 경합도 보여주고 싶다. 볼이 뒀을 때 자신 있다. K리그2에서는 자신감으로 경합을 했는데 1부에서 통할까 궁금하다”고 밝혔다.

임원상(울산)과의 대결도 기대되는 지점이다. 금호고 출신의 ‘엄듀오’로 1부리그에서 활약을 했던 두 선수가 적으로 다시 그라운드에서 만난다.

엄지성은 “재미있을 것 같다. 같은 팀에서 왼쪽, 오른쪽에 섰던 선수들이 상대편으로 같은 쪽에서

붙는다. 배울 것은 배우고 경기장 안에서는 선후배 없이 선수 대 선수로 경쟁을 하는 것이니까 절대 안 지려고 노력할 것이다. 형이 스피드, 체력이 워낙 좋고 나보다 나은 부분이 많지만 나는 왼발 장점이 있다. 왼발 슈팅,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은 형보다 자신 있다”며 웃었다.

팀 내에서도 엄지성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

산드로는 “탄탄대로를 걸을 선수”라며 엄지성을 언급했고, 이정호 감독은 기대가 큰 만큼 유독 강한 ‘채찍질’을 한다.

엄지성은 “그런 채찍질을 맞아야 발전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해 계속 발전했던 것 같다. 한 골, 두 골 넣으면 안주하지 말고 세 골, 네 골 넣을 수 있을 때까지 넣어야 하는 게 프로라고 말씀하셨다. 포인트를 몇 개 하겠다고 하기보다는 할 수 있을 만큼 하면서 목표를 키워가겠다”며 “축구를 12년 했는데 아직 반도 안 했다. 신기하다. 인생의 반 이상을 축구를 했는데 아직 반 이상이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을까’ 기대된다. 아직 많이 부족하니 올해 감독님 밑에서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WBC 호주전 ‘땅꾼’ 투수들에 달렸다

이강철 감독·진갑용 코치 분석
“체인지업 구종 투수 대거 투입”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 야구대표팀의 배터리 코치인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진갑용 수석코치는 29일 스프링캠프가 열리는 미국으로 떠나기 전 중요한 힌트를 하나 남겼다.

이강철 대표팀 감독과 함께 이달 초 호주로 넘어가 WBC 본선 1라운드 상대인 호주 선수들의 전력을 분석하고 돌아온 진 코치는 엄지와 김지를 붙여 윙을 그린 뒤 나머지 세 손가락을 벌려 공을 잡는 서클 체인지업 그립을 보여주며 “이 구종이 호주전에서 중요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지와 세 번째 손가락을 벌려 잡는 포크볼 또는 스플리터는 직구처럼 날아오다가 홈 플레이트에서 급격하게 가라앉는 구종으로 일본 투수들의 주무기다.

서클 체인지업은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는 유인구다. 이강철 감독과 진갑용 코치 등 한국대표팀 코치진은 힘 좋은 호주 타자들을 막기 위해서는 체인지업이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WBC 4강 진출에 도전하는 야구대표팀은 목표 달성을 위해 무조건 이겨야 하는 호주와의 본선 1라운드 첫 경기에서 체인지업의 장인들을 몽땅 투입할 참이다.

실제 투수들도 체인지업을 잘 던지는 투수 위주

로 뽑았다.

야구 통계 사이트 스탯티즈의 작년 자료를 보면, 체인지업의 구종 가치 1위 고영표(KT wiz), 2위 원태인(삼성 라이온즈), 5위 김윤식(LG 트윈스), 10위 양현종(KIA 타이거즈)이 모두 태극마크를 달았다.

고영표와 원태인은 체인지업의 구사 비율에서도 전체 1, 2위를 달렸다. 이 부문에서 양현종은 4위, 소형준은 7위에 올랐다.

김광현(SSG 랜더스), 박민(두산 베어스), 박세웅(롯데 자이언츠)은 스플리터를 애용하는 투수들이다. 스탯티즈의 순위에서는 빠졌지만, NC 다이노스 좌완 구창모도 포크볼을 잘 던진다.

스트라이크 존 높게 들어가는 체인지업을 던졌다가는 큰 것 한 방을 맞을 수 있는 위험도 있지만, 낮게 제구된다면 체인지업만큼 땅볼을 유도하기에 좋은 구종도 드물다.

지난해 땅볼을 뜯공으로 나눈 비율에서 고영표는 리그 평균(1.08)보다 높은 1.86으로 전체 1위를 달렸다.

이 부문 4위 박세웅(1.76), 5위 소형준(1.58)도 땅볼 유도 능력에서 리그 톱 클래스를 자랑했다.

프로 10개 구단 스프링캠프가 막을 올린 만큼 대표팀 ‘땅꾼’ 투수들이 WBC 공인구에 적응해 체인지업의 효용 가치를 얼마나 끌어올리느냐에 호주전의 성패가 달렸다.

/연합뉴스

유럽축구 겨울 이적시장 마감 EPL, 벌써 8천300억원 썼다

유럽 축구 겨울 이적 시장 마감에 하루 안으로 다가온 가운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구단들의 지출이 8300억원을 넘겨 역대 최고 규모인 것으로 파악된다.

영국 BBC방송은 자체 분석을 통해 현지시간으로 31일 마감하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EPL 팀들이 5억5000만 파운드(약 8360억원)를 썼다고 30일 보도했다.

한국시간으로는 2월 1일 오전 8시까지이다.

이는 역대 최고 기록으로, 막판 협상 중인 팀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추가 이적이 확인되면 규모가 더 커진다.

종전 최고치는 2018년 1월에 기록한 4억3000만 파운드(약 6530억원)였다.

올해는 마지막 날 성사된 최고액 거래 기록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

기존 기록은 전 스페인 대표팀의 공격수 페르난도 토레스가 2011년 리버풀에서 첼시로 이적하는 중에 나왔다.

당시 첼시는 리버풀에 이적료로 5000만 파운드(약 760억원)를 지불했다.

이번에 이 기록을 깰 후보 1순위도 첼시다.

첼시는 카타르 월드컵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한 미드필더 엔소 페르난데스를 데려오기 위해 벤피카(포르투갈)에 1억560만 파운드(약 1600억원)

의 이적료를 제시했다. 양 측은 아직 협상 중이다.

EPL 팀들은 지난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도합 19억 파운드(약 2조8900억원)가량을 쓰면서 지출 기록을 갈아치웠다. 종전 최고인 2017년의 14억 파운드를 훌쩍 넘어섰다.

여름과 겨울 이적시장을 합친 한 시즌 전체 지출도 현재 최소 25억파운드(약 3조8000억원)에 이른다. 이 역시 역대 최고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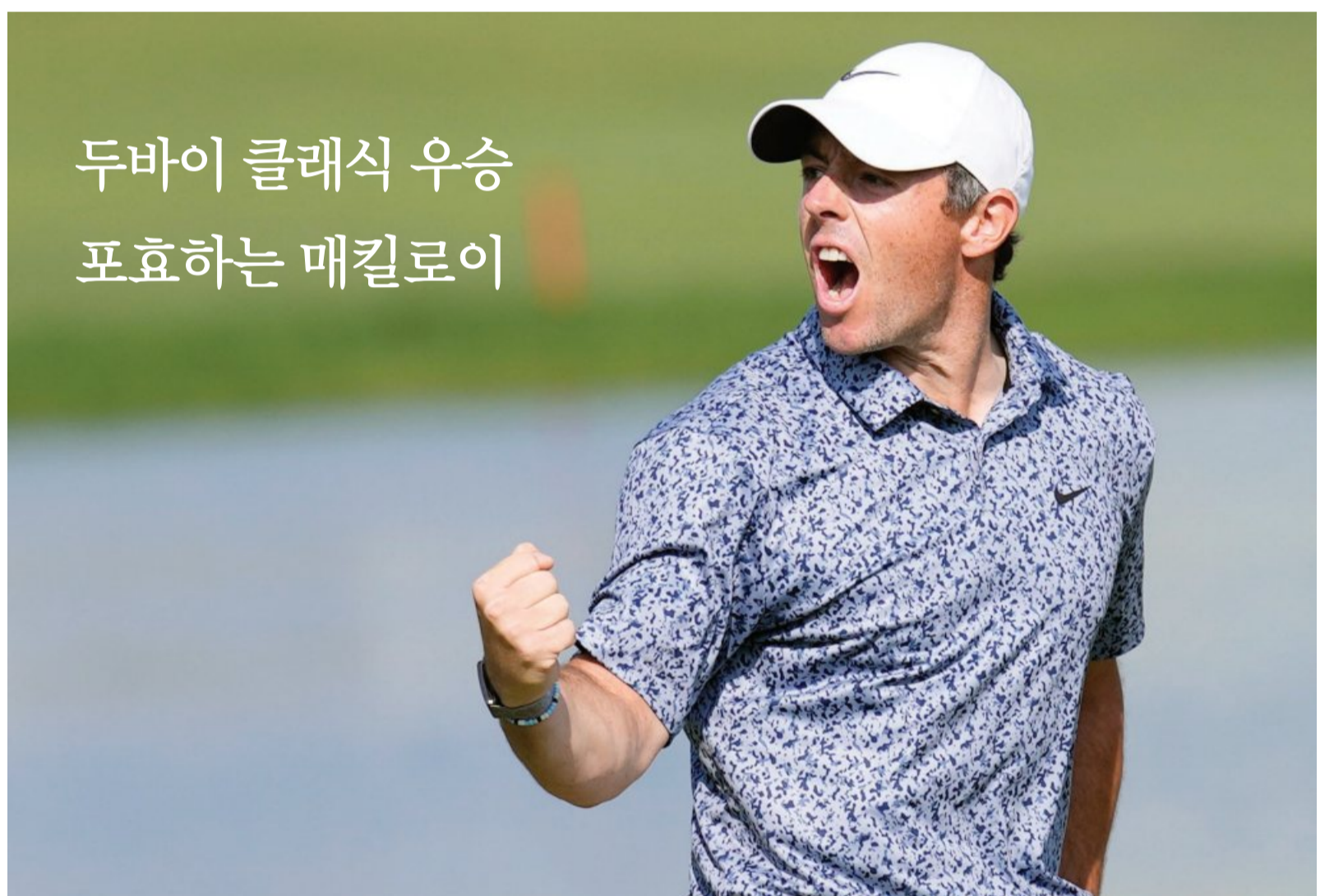
이런 흐름을 주도하는 팀은 단연 첼시다.

러시아 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의 뒤를 이어 첼시의 주인이 된 토드 보일리 구단주는 이번 겨울 시장에서만 7명을 데려오면서 2억 파운드를 넘게 썼다. 특히 이달 중순 우크라이나 신에 원어 미하일로 무드리크를 ‘하이재킹’하며 최대 8900만 파운드(약 1300억원)에 이르는 이적료를 샤흐타르(우크라이나)에 내기로 했다.

황희찬이 뛰는 울버햄프턴도 강등권 탈출을 위해 이번 겨울 시장에서 지갑을 풀었다.

브라질 공격수 마테우스 쿠냐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에서 임대료 데려온 울버햄프턴은 이달 중순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에서 원어 파블로 사라비아까지 영입해 공격진을 두껍게 했다. 미드필더 마리오 레미나, 수비수 크레이그 도슨도 이달에 울버햄프턴 유니폼을 입었다.

/연합뉴스



로리 맥길로이(북아일랜드)가 31일 두바이 에미리트 골프클럽에서 열린 DP 월드투어 히어로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에서 우승한 뒤 환호하고 있다. 맥길로이는 이날 4라운드 경기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대회 최종합계 19언더파 269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오일머니’로 특급 선수 호출…사우디 인터내셔널 2일 개막

캐머런 스미스·디샬보 등 참가
문경준·박상현 등 한국 8명 출전

프로 골프에서 변방으로 취급받던 아시아프로골프투어가 막대한 ‘오일머니’ 덕분에 특급 선수들이 몰린 대형 대회로 거듭났다.

아시아프로골프투어는 2일부터 나흘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킹압둘라 경제도시에 있는 로열 그린스 골프&컨트리클럽(파70)에서 2023시즌 개막전 PIF 사우디 인터내셔널(총상금 500만 달러)을 개최한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주최하는 이 대회는 2019년 DP 월드투어(옛 유러피언프로골프투어) 대회로 시작했다.

KLPGA 2023시즌 총상금 311억 ‘역대 최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3시즌이 총상금 311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KLPGA 투어는 31일 서울 강남구 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사회를 통해 확정된 2023시즌 일정 및 상금 규모 등을 발표했다.

2023시즌은 총 32개 대회, 총상금 약 311억원 규모로 열리며, 대회 평균 상금은 9억7000만원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PIF가 지원한 LIV 골프가 출범한 뒤 DP 월드투어와 PIF가 사이가 틀어지면서 아시아투어 대회로 바뀌었다. 아시아투어 대회로서는 이례적으로 총상금이 무려 500만달러(약 61억4000만원)에 이르는 특급 대회가 됐다.

미국프로골프(PGA)투어를 등지고 LIV 골프에 합류한 거물급 선수들이 빠짐없이 출전한다.

작년 디옌 챔피언인 세계랭킹 3위 캐머런 스미스(호주)는 올해 처음 대회에 모습을 드러낸다.

지난해 대회 출전이 뜸했던 필 미켈슨(미국)도 올해 첫 출전 대회를 이곳으로 정했다.

브룩스 켈프, 브라이언 디샬보, 패트릭 리드, 버바 왓슨(이상 미국),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 헨리크 스텐손(스웨

덴) 등 골프 팬들에게 낯익은 얼굴이 수도룩하다.

PGA 투어의 승인을 받아 캐머런 영, 캐머런 켈프(이상 미국) 등 PGA투어 선수도 출전했다. 눈에 띄는 건 한국 선수들이다.

문경준(41), 박상현(40), 이태희(39), 김영수(34), 장이근(30), 김비오(33), 옥태훈(25), 김민규(22) 등 무려 8명이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프로골프(PGA)코리아투어와 아시아투어를 병행하는 이들은 총상금 500만달러짜리 특급 대회에서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과 겨뤄 어떤 성적을 낼지 주목된다.

이 대회와 겹친 PGA투어 AT&T 페블비치 프로암(총상금 900만 달러)에는 세계랭킹 10위 이내 선수 9명이 빠져 다소 맥이 빠졌다.

/연합뉴스

원에서 2023년에는 16억6700만원으로 상금 액수를 늘렸다. 총상금 10억원 이상 대회는 32개 대회 중 14개로 전체의 43%에 달한다. 총상금 12억원 이상은 9개 대회다.

KLPGA 투어 2023시즌은 지난해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으로 개막했고, 올해 첫 대회는 4월 6일 제주도에서 막을 올리는 롯데리얼 여자오픈이다.

시즌 최종전은 11월 SK월러스·SK텔레콤 챔피언십이다.

/연합뉴스